



기아차가 1970년 처음 내놓은 승용차 피아트124 당시 신문광고.



기아차의 승용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프라이드.



기아차가 처음으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세피아.



현재 기아차를 대표하는 승용차 K5.

기아차, 국내 승용차 판매 500만대 돌파

기아자동차가 '국내 승용차 판매 500만대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다. 1970년 처음으로 승용차 판매에 들어간 뒤 4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기아차의 첫 승용차는 광주공장의 전신인 아시아자동차에서 출시됐다.

17일 기아차가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는 501만2236대다. 100만대 판매 달성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아차가 처음으로 내놓은 승용차는 현재 기아차에 흡수된 아시아자동차가 1970년 3월 출시한 피아트124부터 시작됐다. 23년이 흐른 1993년 기아차는 100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섰고, 3년 뒤인

1996년엔 200만대, 2006년 300만대, 2011년 400만대를 달성한 이후 4년 만에 5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가 그동안 출시한 승용차만 해도 경차 4종, 소형차 7종, 준중형 10종, 중형 9종, 준대형 1종, 대형 6종 등 총 37개 차종에 달한다.

첫 차인 피아트124는 아시아자동차가 이탈리아 피아트사와 기술 제휴로 생산한 후륜구동차로, 경제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단종되기 전인 1973년까지 3년간 6800대가량이 생산됐다. 기아차의 승용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1세대 프라이드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70만6128대가 팔렸다. 기아차와 일본 마쓰다, 미국

1970년 피아트124 첫 출시 ... 45년만에 37개 차종... 1세대 프라이드 70만대 최다 다음달 서울모터쇼서 2세대 K5 최초 공개

포드사의 합작으로 탄생한 이 차는 13년 간이나 폴 모델 체인지(완전변경)가 없었음에도 꾸준히 팔리며 기아차의 대표적인 소형차로 자리 잡았다. 기아차가 현대차로 인수된 이후 2005년에 내놓은 2세대 모델과 현재 시판 중인 3세대 모델은 각각 기아차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47만2920대가 판매된 세피아(1세대)다. 세피아는 기아차가 5300억원을 들여 디자인은 물론 플랫폼까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준중형차다. 1991년 도쿄모터쇼에 출품돼 주목을 받았다. 날렵한 디자인에 주행능력이 뛰어나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출시돼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2세대 모닝(40만7299대)과 그 이전 모

델인 1세대 모닝(37만8060대)은 기아차 누적 판매량 각각 3위와 4위에 오른 차종이다. 2세대 모닝은 지난해에도 매출 9000대 이상 팔리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쏘나타에 이어 2번째로 가장 많이 팔렸다.

기아차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이 팔린 차종은 K시리즈의 대표모델인 준중형 K5이다. 2010년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판매량은 총 34만4070대에 달한다. 기아차는 올해 4월 열리는 서울모터쇼에서 5년 만에 2세대 K5를 최초 공개하고, 하반기 중 신차를 출시한다. 기아차의 올해 최대 야심작으로, K5 가솔린 모델뿐만 아니라 디젤, 하이브리드(HEV), 플러그

인하이브리드(PHEV), 터보엔진까지 다양한 모델이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기아차의 승용차 누적판매 비중은 현재 전 차종 판매대수(1089만4430대)의 46.0%다. 레저용차량(RV)이 21.3%(232만3135대), 상용차가 32.7%(355만9059대)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반기에 신형 K5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승용차 판매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의 상용차 역시 승용차보다 오래됐다. 1962년 삼륜차(상용) K360을 국내 시장에 처음 판매한 이래 2013년 이미 10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마케팅 강화로 준치 검토

폐지 반대 여론 거세 의견 수렴

감사원 감사로 폐지가 거론됐던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기능 강화를 통해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7일, 현재 지역 사무소에 대한 폐지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반대 여론이 커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광주와 대구 2곳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사무소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따라 거래소가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으나 광주와 대구지역 상공인과 지역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져자 거래소가 폐쇄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역사무소의 폐쇄 시기를 오는 6월로 예정했던 만큼 남은 기간 거

래소 지역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역 여론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무소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근 그 기능을 관리 조직에서 마케팅 조직으로 바꾸는 등 조직관리에 변화를 줬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광주사무소가 인근 지역 성장 설명회 개최와 기업방문을 주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지역사무소의 유지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인만큼 지역사무소 유지의 필요성과 기능강화에 대해 감사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광주에 문을 연 광주사무소는 20년동안 지역 기업의 직접금융 업무를 돕고 투자자들의 증권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7일 광주·전남중기기업청의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학식. 광주시·전남중기기업청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신사업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중기기업청 제공>

광주·전남중기기업청,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7일 소수 정예의 예비창업자에게 신사업 창업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기업청은 이날 '제1기 소상공인 사관학교' 입학식을 갖고, 예비창업자 18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신사업 업종은 3D 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업과 디지털 정래업 등 신기술·지식을 접목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한 것이다. 소상공인 사관학교에서는 교육과 점포

경영체험, 멘토링, 정책자금 통합 지원 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상품전략과 창업 초기 필요 지식, 브랜드 경영 등 150시간의 이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광주의 중심상가에서 3개월의 체험과 정도 마련했다. 사관학교 수료생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우수창업생에게는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두 번 운영되며 2기 교육생은 오는 5월 모집·선발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9.91 (+42.58)
- ▲ 금리 (국고채 3년) 1.87% (+0.02)
- ▲ 코스닥 636.05 (+0.65)
- ▼ 환율 (USD) 1128.90원 (-2.60)

코스피 2029 ... 연중 최고치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코스피는 17일 전 거래일보다 42.58포인트(2.14%) 오른 2029.9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작년 9월 30일 이후 6개월 만에 2020선을 상회하며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시가총액도 1264조원으로 지난 6월 이후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최근 단기조정 이후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0.65포인트 오른 636.05포인트를 기록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지수 최고치는 2008년 6월 9일로 637.00포인트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장 막판 상승폭을 늘리며 2030고지를 위협했다. 삼성전자와 장중 한때 150만원을 돌파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증권업 등 내수업종도 크게 올랐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일부 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과 달리 큰 폭 상승세를 실현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 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FOMC서 금리인상을 사두르지 않을 것이라 기대로 1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와 S&P, 나스닥지수 모두 1% 이상 급등장을 연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636 결코 믿을수없지 않아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2014미스코리아 "김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올림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우승신 여성' 희망 31-58세</p>
		<p>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랜드 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